

사회

“살겠다는 ‘희망의 빛’ 포기 안했죠”

칠레 광부 구조 지켜 본 27년전 화산탄광 매몰 박태옥씨

“인간의 위대한 생명력에 새삼 고개가 숙여집니다. 33인의 칠레 광부들은 절망적인 현실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불굴의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구조소식에서 희망을 봤으면 합니다.”

27년 전 화산군 동면 석공 화산 광업소 산하 흥성기업 동구본사 동구 갱(坑) 6번 지하 772m지점에서 매몰 사고로 10여시간 만에 구조된 박태옥(56·화산군 화산읍)씨는 13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 매몰된 광부 33명 중 7명이 69일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게 됐다”고 말했다.

지하 700m 갱도에서 신체적 압박과 심리적 공포를 이겨내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1983년 11월 28일 오전 11시께 동구 갱 6번 지하 772m지점에서 채탄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5t가량의 바위와 석탄이 쏟아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막장과의 거리는 불과 5m 지점. 박씨의 동료 3명은 매몰 사고현장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인 관계로 매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한 평(3.3m) 남짓한 공간에 홀로 갇힌 박씨는 안이 너무 비좁아 움직일 수 없었다.

“여기요, 살려주세요.”라고 연신 외쳐왔지만, 들려온 대답은 메아리 뿐이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물리쳤다. 지문이 닳도록 석탄을 파봤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동료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안에 갇혀 있다보니 방향 감각



지난 1983년 화산탄광에서 매몰됐던 박태옥씨(등에 업힌 사람)가 구조돼 갱 밖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 없어지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했고요. 별의별 생각 다했죠. 나를 구조하러 올까? 아니면 이곳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사람 참 묘하더군요. “꼭 살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희망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고요하던 갱 내에 인기척과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고, 박씨는 매몰된 지 10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50분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돌아왔다. 20년 전 광업소를 그만둔 박씨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삶의 의미 없겠죠.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칠레 광부들이 보여준 것처럼요.”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고층건물 특별소방검사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광주동부소방은 13일 오전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호계림 주상복합건물에서 고층건물 특별소방검사를 실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등을 점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환자 강제 입원시키고 정부 보조금 가로챈

담양 장애인 시설 폐쇄 권고

국가인권위

일부 지적 장애인 치료 시설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인권을 침해하고, 운영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지적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담양의 한 미신고 지적장애인 시설 B원장·C시설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담양군수에게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담양 미신고 A 지적장애인 시설은 지난 5월 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24일간 입소자 윤모(여·34·뇌병변장애 1급)씨 등 4명을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원장 등은 200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윤씨 등 4명을 정원의 입소자로 관리하면서 이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등 모두 3354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시설은 최근 담양군의 시설 점검 소식을 듣고 정부 지원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원장은 조사에서 “건장 검진 차원에서 입원(일반병동)

의뢰를 한 것이지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윤씨 등이 정원의 관리 입소자인 점과 24일간 장기 입원시키면서 가족 동의 없이 입원 의뢰한 점, 입원 의뢰 당시 A시설 측에서 “정신과적 치료와 검진을 해보겠다”고 했다는 병원 측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시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동생(여·28)은 지난 5월 초 “A시설에서 생활 중인 언니가 광주 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최희호기자 choice@kwangju.co.kr

“체불 임금 달라”

순창서 40대 男 분신

13일 오전 11시57분께 전북 순창군 유등면 모 건설회사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현장사무소 앞길에서 서모(47)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서씨는 가슴과 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동료 20명과 함께 “체불 임금을 달라”며 항의하던 중 분신을 기도했다.

서씨는 A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에서 레이콘 차량 운전기사로 일해왔으며 임금 800만원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학원교습시간 단축안 또 무산

“도시처럼 일률적 제한 교육실질 안맞아”

전남도의회 교육위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안 개정이 또 무산됐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전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기로 했다.

교육위는 전남 상임위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학원교습시간을 도시지역처럼 밤 10시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어촌이 많은 지역 교육실정에 맞지 않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교육청은 2년전부터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고

교생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다.

교육위는 그러나 초·중·고교생의 학원교습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불법고액과외가 성행할 수 있는 데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대도시와 똑같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다음 회기에서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교육위 의견을 토대로 11월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원침 (8142) 김장두



로스쿨 위탁교육 검찰 수사관 선발

대검찰청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위탁교육을 보낼 첫 검찰 수사관으로 서울북부지검 조병석(32) 수사관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발표된 법학직성시험(LEET)과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 수사관을 낙점했다고 전했다. 수사관에게 로스쿨 위탁교육 대상자가 되려면 35세 미만으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검 국제협력단에서 파견 근무 중인 조 수사관이 진학할 로스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졸업 후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작년 8월 취임 때 검찰 조직 안에서 검사와 일반직 사이의 오랜 벽을 깨고자 노력 있는 수사관에게 로스쿨 진학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의 오토바이 내 것’ 착각 타고다녀

○4개월 전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10대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다른사람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착각해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된 뺑뺑이 기사로 선처.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19)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호텔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모(24)씨의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용달차를 불러 인근 오토바이수리점으로 가져가 키박스를 교체해 타고 다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주차돼 있던 차씨의 오토바이를 보고 지난 6월 도난당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누군가 타다가 버린 것으로 생각해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훔칠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입건 할 방침”이라고 설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죽음까지 따라간 자매의 情

숨진 언니 그리워하던 20대 주부 목 매 자살

지난 12일 오후 6시께 김모(여·27)씨가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신의 집 작은방에 목 매 숨겨 있는 것을 남편(3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남편은 “지난 밤에 작은방에 들어간 아내가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도록 보이지 않아 문을 열어봤는데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약 2년 전 자신의 언니(29)가 화재로 숨진 뒤 힘들어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숨지던 전날인 지난 11일 밤 언니의 미니홈피 사진을 보며 슬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언니의 사망으로 받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구급차- 시내버스 충돌 11명 부상

광주 방림동 사거리서

지난 12일 밤 8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사거리에서 서모(55)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양모(23)씨가 운전하던 나주 모 병원 구급차가 충돌한 뒤, 각각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과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포르테 승용차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환자를 조선대병원으로 이송중이었으며, 버스에는 20여명의 승객

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3대의 차량 운전자, 버스 승객, 응급구조사, 이송 환자 및 보호자 등 총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목적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20대 열차 치여 사망

13일 오후 1시40분께 여수시 화정동 군장마을 인근 철로에서 김모(57)씨가 운전하던 용산철 여전행 무궁화호 열차에 오모(28·여수시 화동)씨가 치여 숨졌다. 기관사 김씨는 경찰에서 “커브구간을 지나는데 갑자기 오씨가 열차 앞으로 뛰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아씨가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일해왔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국동항 앞바다서 60대 선원 숨진 채 발견

13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국동항 앞 해상에서 여수선적 기선전현망 선원 김모(63·경남 거제시)씨가 숨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인 해경 112 구조대가 발견, 인양했다.

김씨는 전날 밤 동료 선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이날 인원점검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것이 확인됐다. 해경은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대학편입 마무리

내년입학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